

2001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서울캠 오늘(15일) 중강당, 경주캠 오는 18일 문무관에서

2001학년도 전기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오늘(15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오복원 이사장과 송석구(철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 수여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8명, 일반대학원 석사 261명, 전문대학원 석사 4명, 특수대학원 석사 270명, 학사 2천 542명으로 총 3천 155명이 학위를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이은상(경영4) △김미경(문창4) 외 10명

이다.

또한 강창영(토목4) 군과 고흥주(토목4) 군이 사회봉사상을, 노춘우(선4) 군과 문영수(토목4) 군이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총동창회장상을 받는다.

한편, 학사전체 수석은 평점평균 4.32를 받은 우승원(국제통상4) 군이, 차석은 평점평균 4.27을 받은 최희영(전자4) 양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별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주기원(불교, 4.23) △문과대=이규리(사, 4.23) △이과대=이승문(화, 4.24) △법과대=이성대(법, 3.76) △사회과대=이현수(정외, 4.06) △경영대=정재

훈(국제통상, 4.22) △생명자원과대=이수진(식물자원, 4.01) △공과대=백현(전자, 4.16) △정보산업대=이병희(컴퓨터멀티미디어, 4.09) △사법대=한지혜(교육, 4.19) △예술대=박대민(영화TV, 4.03) △야간강좌=연은숙(영문, 4.25)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문무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천 774명, 석사 18명, 최고 경연자과장 50명 등 총 1천 842명이 학위를 받는다.

전체수석은 평점평균 4.38을 받은 불교문화대 오영실(선4) 양이, 차석은 평점평균 4.36을

받은 한의대학 이민경(한의4) 양이 각각 차지했다.

이민경 양은 제57회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바 있다.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는 △불교문화대=김영숙(선, 4.28) △인문과학대=고정우(사회복지, 4.24) △자연과학대=이종호(컴퓨터, 4.28) △법정대=김완수(법, 4.03) △상경대=김현정(경영, 4.08) △관광대=이지영(호텔경영, 4.13) △한의과대=최민선(한의, 4.08) △의과대=최민석(의, 4.14) △야간강좌=진영범(경영, 4.11)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오 마이 갓... 오마이 뉴스가 추진해온 대선주자 열린 인터뷰가 선관위의 무력지지로 무산됐다.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오마이 뉴스는 지난 6일 부터 릴레이 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기자 snail11@dongguk.edu

지면안내

판타지세계 속으로 8면



최근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반지의 제왕' 등 판타지 영화가 흥행하면서 판타지 붐이 일고 있다. 이에 판타지 장르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학벌사회 진단 4면

학위수여자 명단 6면

보리수

마왕의 반지

정승석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은 환상적인 가공의 세계에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회복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독자들은 작가가 총횡무진으로 펼치는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다 보면, 작가가 내면에서 목격하고 있는 세계는 그 환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반지의 제왕'에서 시종 일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제는 '갇기와 버리기'이다. 작가가 목격한 우리의 현실은 오직 갇기만을 바라는 탐욕의 자기 위해성을 각성하지 못하는 무지의 세계이며, 작가가 꿈꾸는 이상은 그 무지를 각성하고 탐욕을 버림으로써 도래하는 자유와 평화이다. 이 소설에서 마왕의 반지는 갈등과 불화와 투쟁 등 온갖 불행의 원인을 상징한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악의 근성이며, 불교적으로 말하면 맹목적 무지인 무명이다.

이 반지는 사용하게 되면 일단 위기를 모면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은 위장된 안정일 뿐이다. 반지는 이 효력을 선사하고 나면, 곧바로 사용자의 의식을 지배하여 악의 근성에 사로잡히도록 부추긴다.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이 반지는 의지와 이성을 잡아먹으며 소유자를 유혹하여, 그 마음속에 세상의 지배자가 된 듯한 온갖 환상이 난무하게 한다. 그래서 반지 폐기의 사명을 떠맡은 주인공에게는, 아무리 위기에 처하더라도 이 반지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가 뒤따른다. 아마 작가의 의중에서 이 충고는 다음과 같은 보람삼매론의 말씀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번뇌하는 그대여, 세상살이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고 사치스런 마음이 생기나니.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을 들게 되나니."

앞으로 닥칠 위험을 각오하며 반지를 버리기 위해 떠나는 이들에게 보내는 짧막한 충고는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명과 대결하십시오." 이제 졸업하는 이들과 입학하는 이들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기를 바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무명과 대결하십시오."

신입생 O.T. 20일부터 3일간

모의토익시험 · 수강신청 진행

200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0일부터 3일간 열린다.

첫째날 오전 9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시작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학교홍보 영상물 상영을 시작으로 △교과 배우기 및 불교합창단 공연 △이은택 2002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장 강연 △캠パス 안내 영상물 △제27회 외부고시 수석합격자 황남기(인도철87졸)등문 강연 △AJAX 공연 △응원가 배우기 및 백상응원단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 90주년 기념문화관과 동국관에서 모의토익시험을 실시하며, 중강당에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둘째날 오전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 예비교육이 실시되며, 오후 2시부터 학부·과, 계열, 전공별 오리엔테이션과 학업지도교수제를 활용한 '소그룹별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단과대별 지정 장소에서 수강신청을 한다.

한편, 야간강좌는 둘째날 오후 6시부터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단과대학 전체와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마지막날 오후 6시 30분부터 수강신청을 한다.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 장소
불교대학	문화관 K308
인문대학	동국관 L501
이과대학	삼목원 식당 3층
법과대학	동국관 L101
사회과학대학	문화관 예술극장
경영대학	동국관 L401
생명자원과학대학	문화관 덕담메디나실
공과대학	본관 중강당
정보산업대학	중앙도서관 4층 제2열람실
사법대학	학림관 수강당
예술대학	문화관 2층 세미나실 3
야간강좌	문화관 예술극장

총장선출준비위원회 "재단 낙점 없을 것"

총장선출준비위원회(위원장=유덕기·생명자원유통경제학, 이하 총선위)가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 합동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월에 진행되는 총장선출을 위해 지난달 31일 발족한 총선위는 △교수회 규정에 의한 선출 준비 △선거관리위원회 9월 발족 △총장후보에 출마하는 보직교수는 8월말까지 사퇴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유덕기 총선위원장은 "이번 총장선출은 재단에서 낙점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안 이사회, 무기한 보류결정

강정구(사회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안이 무기한 보류됐다.

이사회는 "강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인 만큼 재판을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학교측에서 공식요청한 직위해제안을 유보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직위해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이다.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영종(행정학) 교수



김영종(행정학) 교수가 지난 1월 17일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임명됐다.

신임 김영종 부총장은 서울대 석사, 본교 박사를 거쳐 경주캠퍼스 법정대학장, 사회과학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공금횡령사건 문제 일단락

이사회, 전 법인처장 등 징계위 회부 결의

법인세 환급금 횡령사건과 관련 재단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영배, 이하 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본관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조사위는 이번 횡령사건이 경리담당직원 김모(37) 씨의 단독행위를 보고했다. 이후 이사회는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오복원 이사장은 공금부정사건과 재단 관리부실에 대한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퇴한다"고 결의했다.

이사장 거취문제 논의에 앞서 오복원 스님은 "입기 내 최대사

업인 일산병원 건립을 마무리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오복원 이사장은 오는 12월 일산병원 개원 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둔 것이다.

또한 이사회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 법인사무처장 △사무처장 △법인사무처 총무팀장 △경리담당직원 김모씨(37)를 각각 교원·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감사 3인에 대한 책임여부는 이날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법인사무처는 경리직원 김씨가 횡령한 법인세 환급금 27억을 학교측에 지불할 예정이며, 법원에

김씨에 대한 배상청구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오는 19일 공판에서 법인측의 요구대로 배상청구가 결정되면, 김씨는 형 집행 이후에도 동국학원측에 횡령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LA 동국로얄병원을 법원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제정됐다.

또한 재단 보직에 교수 임명을 금지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와 관련 지난 4월 전 등사 회주 장운 스님이 신임 법인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 개설

문화재 원형에 근접한 재현 가능

본교가 국내 최초로 3차원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박물관을 개설해 26점의 불교문화재를 선보인다.

기존의 사이버 박물관은 문화재 원형을 3차원으로 스캔한 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색상을 따로 덧입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은 문화재의 형상과 색상을 동시에

고밀도로 측정, 1천 670만 컬러로 재현해 원형에 근접한 문화재 감상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재의 손상에 대비한 복제품이나 축소품 제작이 가능해 불교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어 불교문화재를 이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캐릭터상품 등 관광품개발을 통한 불교대중화도 가능하다.

사이버 박물관은 본교 홈페이지에 링크 돼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2차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3월 4일부터 16일까지 35점의 불교문화재가 추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불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의 내부 관찰 등 실제로 관람하는 것이 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여러분의 앞길에 든든한



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풀이 더 많고, 사람들이 걸은 자취가 적기에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환승을 쉬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겠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 '가자 않은 길' (프로스트)-

가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랑스런 동국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동국이 함께 합니다.

동대신문사



200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주체적인 삶 사는 지성인 되길

날로 새로워지는 동국인으로

존경하는 동국학원 임원님, 총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교직원과 동국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예의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받으시는 졸업생 여러분!



장사야할 소임이 있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국경과 국적이 해체되는 세계화 시대를 맞고 있으며, 지식 정보화를 향한 무한 경쟁 체제로 치달고 있습니다. 또한 편협한 배타주의와 이기적 독선주의는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인간 중심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자연과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원력을 가진 이의 마음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과 빛이 깃드는 법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미움과 갈등, 탐욕과 불신으로 가득 찬 어두운 사회를 평화와 번영의 사회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동

악의 언덕에서 갈고 닦은 바와 같이 지혜로써 사리를 판단하여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이 도전받는 어떠한 시대에도 참다운 인간성 회복과 요익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우고 자연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비로운 인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투명한 지성과 불퇴의 정진력으로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인생의 대도를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동국의 정신을 간직하고 정든 교정을 떠나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의식입니다. 비록 오늘 이 정든 동악의 언덕을 떠나더라도 동국대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졸업생 여러분들은 늘 동국학원의 한 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20만 동국인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여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 갈 큰 동량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거듭 오늘 의 뜻 깊은 졸업과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 녹 원 이사장 함창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삼보의 언덕에서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는 소정의 과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이제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사회로 나서는 새로운 인재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감회가 박합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각박한 바 있어 각자가 연마한 기량과 의지와 소망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크지만, 인간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참다운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고답적인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용기는 없습니다. 이는 내일을 지향하는 확신과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로 꿈을 경영하는 자들이 참으로 인생의 심오한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앞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선지자들의 자취에서 배운 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공로에서 연마한 지식과 인격이 당장 나에게 어떤 삶의 값으로 환원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의 비중은 구체적인 값으로 계량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해내는 결과에 의해 가능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의 변란기에 있어서는 지식의 단순한 도구화를 지양하고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의 창조와 활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성급한 자기 구현의 욕망에 끌려 다니기보다 어떤 삶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고양시키는 것인지, 또 무엇이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여러 존재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미덕인지를 사색하는 여유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비겁한 도피와 외면으로 위장된 무기력으로 자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침잠의 시간을 통해 충만한 자기 성찰을 마친 이후에는 의연한 도전의 용기

로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이상과 진리와 양심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재화와 공명을 쫓아가는 불나방의 맹목에 흉내내지 말고,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아 당당한 진실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당부를 부디 가슴에 담아 동국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거침없이 펼치기 바랍니다.

곱아진 길을 바로 펴고 그늘진 곳에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듯 참사람 교육의 정신을 끝까지 온 누리에 베푸는 관용과 화합의 도리를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 학위를 영예롭게 취득하신 여러분은 그 동안 크고 작은 애로를 잘 극복하신 결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힘껏 돌보아주시는 부모 가족들과 부당한 지도관탈로 이끌어주신 은사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의 기쁨에 자만하지 말고 '날로 새로고' 또 날로 새로워지도록'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석 구 총장 함창

소나기

졸업 후 나의 모습은...



△플랑플랑한 학생들 앞에서 침 튀기고 있을거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이고 싶다.

△졸업은 또하나의 시작이다. 일단 돈을 벌기위해 활뿔거리겠지.

△꿈을 향해 달려가지.
△멋진 회사원. 되고 싶죠?
△행정고시에 붙어 행정부나 재경부에 들어간다. 이후 모습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고려는 해보지 않은 상태이다. 현 상황에서 행사가 일차적 목표이고 당면과제이기에 다만 행사를 위해 노력할 뿐이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해매고 있을 듯.
나: 대통령 부인
내 애인: 대통령 애인
△멋진 통역사. 세계를 무대로!

△1년 후 나는 그곳에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졸업후 나의 모습은.
△공공의 적(?)이 아닐까!
△아들 딸의 아버지라 되어 있다네~
△내 생애 끝날이 온다(?)
△졸업하기 시리임~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어야지~
△동대 조교!!ㅋㅋㅋ
△나의 꿈은 현모양처래요.
△졸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나이에 군발이 가 되다니... 쩌...
△모르겠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초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
△난 졸업하면 군대간다.
△취업문을 열거당!
△키가 크지 않을까 - 나의 바램
△먹고 살 걱정 하겠지.
△1년 동안 배낭 여행 다닐 준비!
△취업해야지.
△혼자 살아야지. 독립만세~

역압과 소외의 극복을 위하여

새삼스럽게 졸업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사전을 찾아보았다. 흔히 알고 있듯이 사전에는 "(학생이 어느 단계의 학교를) 소정의 학업을 모두 마치고 나오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나의 지난 대학시절을 생각해보았을 때 다른 학우들만큼이나 '소정의 학업'을 모두 마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에게도 졸업장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렇지만 뭔가 깨끗하고 시원하지 못하다.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라는 '기대'는, 그리고 준비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적자생존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양산되

고 있는 '경쟁에서 패배하고 소외된' 졸업생들의 실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의 경제실태통치 실시 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것을 쉽게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도 졸업이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강요된 '역압과 소외'의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학생'이고 '지성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예전과는 다른' 대학시절을 마감하고 있는 듯 하다.
유철주 (문과대 사4)

결코 길지 않은 4년 다양한 경험으로 보람있게

어느덧 벌써 졸업이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 반 실망 반으로 입학한게 바로 엇그제 같은데 말이다.
벌써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진다. 처음엔 4년이란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 생각해보면 아주 짧고도 귀중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다.
누구든 대학을 처음 들어가면 그동안 못해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어한다. 나 역시 그러했고 그동안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만끽해보고 싶었다.
지금에 와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귀중한 시간을 의미없이 보낸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좀 더 의미있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

봤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활 4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곧 새내기들도 들어 올테고 지금 한 학년씩 올라가는 후배들한테 꼭 이 말만은 전해주고 싶다. 보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며 자기 개발에 노력한다면 졸업하는 그 날이 좀더 빛나고 보람될 것이다. 나 역시 다가오는 졸업식 날이 빛나고 보람된 모습이기를 바란다.
박영미 (자연대 안공4)

알림
이번호부터 만평·만화작가가 정승이(국고4)에서 임희정(미술3)으로 바뀔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울 ☎: 2260-3491·2 FAX: 2279-1270
경주 ☎: (054) 770-2058 FAX: (054) 770-2057
문의·제보: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니우누리 ID: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퇴기입성을 축하합니다. -귀염둥이들
△축의 졸업을 축하해요. -02룡
△후니오빠 합격 마니 축하해요. -중도여학우일동
△체교과 임용시험 합격을 축하해요. -young
△수경야 생일 축하해. -삼수
△미경형, 대철형, 철주형 드디어 졸업하시네요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41st
△낫술의 편입을 축하합니다.
△풍물매 마당 김애선, 박영실의 졸업을 축하!
△공국고 지희,해정 생일축하해!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하자 파이팅!
△조운경, 순산 축하해. 아인이 생일은 2월 1일이네 부러워~ 좋겠다!
-국교미녀삼총사

수고하셨습니다

△산악부 1학년들이 동계등반 무사히 끝마치느라 수고했다. 2학년때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생활하기 바란다. -Y대장
△전체일꾼 수련회에 다녀온 과장님, 과 일꾼, 단장님, 단위일꾼 그리고 중앙일꾼 모두 모두 수고 많았어요. -총회장
△생자대 일꾼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멋진 새터 만들어요. -생자경 짱
열심히 하시다
△중도에서 공부하는'경활행진' 모든 학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요
△조경기사 섬보는 우리과 사람들 모두 합격하시다. -짱구
△재한이형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쟁이
△선영아! 오티준비하느라 힘들지? 어려운 점 많을거야. 그렇지만 선영인 열정과 밝은 미소로 무장된 사람이니까 잘할 것을 믿는다. 파이팅!

은방글

축하합니다
△용우형, 미영이형 졸업 축하드려요~ 성공해서 저희들 자주 보러오세요. -후배
△미리언니 13일 생일과 18일 졸업을 축하해. -지현
△진우형! 짱이 되신거 축하드려요. -동신
△창호형!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올해는 유학해서 꼭 좋은 여자친구 사주세요. -비생비사
△왕!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 된 거 축하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라. 건투를 빈다. -ho79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야 공부하느라 수고했다. 장학금 타면 한번 췌라. -동기
△졸업하시는 학생회 간부 여러분.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니가는 s
△군대간 용역이 오빠! 건강하시구요 휴가 나오시면 꼭 불러주세요~
-오빠를 사랑하는 후배가
△현호형, 창호형, 지혜형, 소리형, 미혜형 3년간 수고하셨어여~ 보고 싶어요~ -42nd, 43rd
열심히 하시다
△이번 학기 복학하시는 서비형 올해는 꼭 졸업하세요~
-편 올림
△올해 1년 잘 버티구 내년 한해두 잘 버티보자~화이팅!! -43rd
그리고...
△규미야, 알바월급 타면 한번 췌라! 글구 +a 알지?~ -easy
△현규형 밥 한번 쓴다구 말한지 1년이 다갑니다. 어찌된 건지... 형이 거하게 술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이쁜 세 여인들이
△어느놈이 어른면 날렸어~ -태규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동국관 학생식당	상록원 학생식당	상록원 교직원식당	경주캠퍼스 도서관식당
월	돈육뽕고추찌개 (1300)	콩비지찌개 (1500) 밋소스볶음밥 (1300)	해물된장찌개 (3000)	소고기덮밥 (1800)
화	꼬치우동백반 (1500)	닭가장 (1500) 오징어덮밥 (1500)	참치전골 (3000)	참치김치덮밥 (1800)
수	피자돈가스 (1500)	소고기된장찌개 (1500) 지장밥 (1300)	김치불고기술밥 (3000)	돈가스 (1800)
목	사골우거지탕 (1500)	짬뽕국밥 (1500) 제육콩나물국밥 (1500)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돈육덮밥 (1800)
금	두부김치 (1500)	떡만두국 (1500) 집채밥 (1500)	순두부찌개 (3000)	집채덮밥 (1800)

교원임용고사 합격자 증가
지난해 대비 60명 늘어

2002학년도 중등교원임용고사에 본교 사범대생 120명이 합격했다. 지난 5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합격자는 지난해에 비해 약 60명 증가한 것이며, 특히 서울지역 국어과 모집의 경우 40명 정원 중 본교생이 21명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환(교육학) 사범대학장은 "이번 결과는 선별위원의 증가와 지난 학기 실시한 교육학 특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대 '외국어패스제' 실시
영어·한문 능력 갖춰야 졸업

불교대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정수준의 영어와 한문 능력을 갖춰야 졸업할 수 있는 '외국어패스제'를 실시한다. 영어는 다른 단과대와 동일하게 영어패스제가 적용되며, 이와 함께 한자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불교대는 지난해 영어패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불교대 교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자능력은 불교대 특성상 불독 해독 등을 위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대장경 전산화 시연
화염경 등 데이터베이스화

'한글대장경 전산화 1차 사업 시연회'가 전자불전연구소(소장=한보광·선학)와 역경원(원장=김성구)의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엔 공개된 1차 사업내용은 화염경, 아함경, 구사론 등 불전 30여권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전자불전연구소 홈페이지(http://ebti.dongguk.edu)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새터사교 2주기 추모 문화제
오는 17일 학림관 소강당

'새터사교 2주기 추모 문화제'가 오는 17일 총학생회 주최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잊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리일지는 몰라도, 헛되이 잊혀질 수는 없다는 것을...을 기조로 열리는 이번 추모 문화제는 김덕기(경영4) 총학생회 정책국장의 사회로 △단과대 소모임·동아리 공연 △동공 문화회 시상식 △대화의 시간 등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음악회 등 공연 중심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2학년도 1학기 등록금 5% 인상

학교 "도서관 신축 등 인상 불가피" ... 학생회 "일산병원에 무리한 투자 때문" 반발

총학생회(회장=주진안·국교4)와 학교 당국의 등록금 협의가 지난 5일 열렸지만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는 지난해 9월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측에 가에·결산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이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답해 협의가 지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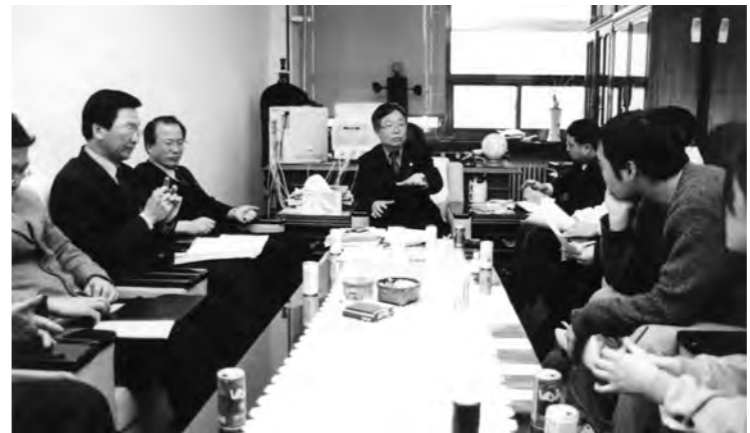
지난 5일 열린 등록금 협의는 정용길(정치외교학) 기획인사처장 등 학교 대표와 양희창(반도체3)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등록금에 대해 학교측은 △도서관 신축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비용

△교육환경개선비 △불가인상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희창 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을 무시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 임은희(수교4)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교육환경개선비 증액을 내세웠지만 올해 가예산에는 실험실습비, 연구비 및 기자재 구입비가 동결되거나 줄었다"며 인상 요인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준호 예산팀장은 "제시한 자료는 가예산일 뿐이며, 실험실습비는 학생 대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되면 정확히 파악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총학생회측은 "재단 전입금

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병원 전입금 전액을 일산병원 건립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한 투자"라고 지적하며 "병원전입금 일부는 교육환경 개선비용과 법적부담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상규 학생복지실장은 "일산 병원 건립은 재투자 과정이며 완공되면 전입금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미희(인철3) 불교대 학생회장은 "병원 주변 인구밀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 보장을 위한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를 매년 20억씩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용길 기획인사처장은 "병원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교양시 일



지난 5일 기획인사처장실에서 등록금 협의가 열렸다.

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병원수요는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주 5% 인상을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사이버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으며, 학교측과 2차 협의를 준비중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열린' 새터 오는 23일부터

장애인학생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눈길

2002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운터(이하 새터)'가 오는 23일부터 5일 동안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1진은 △문과대 △이과대 △사과대 △경영대 △예술대 △야간간과가 23일부터 25일까지 총주회 리포트에서, 2진은 △법대 △생자대 △정산대 △사범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새터를 진행한다.

행사내용은 △영화배우 명계남, 권해효씨를 초청 '인터조선'을 주제로 한 청년강좌 △한글서기 운동 등 일상문화캠페인 △동아리 중앙공연 △단과대별 시간 등이다. 이번 새터는 특히 그동안 새터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학생의 참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본교 장애인인권운동위원회가 구성한 '장애학우와 함께하는 새터 구성 준비위원회(이하 장애준위)'는 '반장애차별 내부규약'을 총학생회에 제안하는 등 장애인 학생과 함께하는 새터를 준비중이다. 또한 장애준위는 새터에 참가해 학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자료집 배부와 교양강좌,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사과대1)

장재준위 위원장은 "대학 생활의 시작인 새터에서부터 장애학우를 '차별' 아닌 '차이'의 대상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과대는 학회 프리젠테이션, 공장견학 등 공대 특성에 맞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총주회 상 탄산하일라콘도에서 새터를 진행한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불교대는 첫날 속리산 법주사에, 둘째날 천안 유성봉장에 머물며 새내기와의 시간을 갖는다. 장재준위 위원장은 "대학 생활의 시작인 새터에서부터 장애학우를 '차별' 아닌 '차이'의 대상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과대는 학회 프리젠테이션, 공장견학 등 공대 특성에 맞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총주회 상 탄산하일라콘도에서 새터를 진행한다.

교수동정

- ▲임현식(반도체학과) =오는 28일까지 공동 연구 논의를 위해 일본 방문.
- ▲이상현(경찰행정학) =지난해 11월 경찰대학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 경찰학회장으로 선출.
- ▲김무근(신문방송학) =지난 9일까지 외부연구 용역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인터뷰를 위해 동경 방문.
- ▲신혜원(가정교육)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의류산업 시장조사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프랑스 파리 방문.



학림관 3층 교육매체센터에 마련된 사이버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이 진행중이다.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이번 학기부터 가상강좌 '대학기초영어'를 통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원흥별관 완공 학군단 등 입주

정보관리실, 개강전까지 컴퓨터 교체

원흥별관이 완공돼 이달 안에 학군단, 공과대 전용강의실, 기계공학과와 전자공학과 실험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본관 1층 소극장을 개조해 연극학과 실습 스튜디오를 설치한다. 이 밖에 학생회관 1층 로비 바닥 공사와 의자 교체작업, 명진관 계단

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 공사가 개강 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개강 전까지 △동국관 BSC10 컴퓨터 98대 업그레이드 △명진관 EA 컴퓨터 10대 추가구입 △정보문화관 ESC3 컴퓨터 51대를 모두 교체하고 빔프로젝트 11대를 교무위원회실 등에 설치한다.

졸업생 생협출자금 환불 소속 교학과에서 지급

생활협동조합은 어제(14일)부터 2002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출자금 환불을 실시한다.

대학원 학부 졸업생 모두 소속 교학과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배당금 1,000원을 포함한 11,000원이다. 올해 출자금 환불대상은 대학원생 349명, 학부생 2천 542명으로 총 2천 891명이다.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 장소 안내

▷ 졸업받은 반납시 졸업앨범을 교부함

단과대학	학 과	학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앨범, 졸업논문 배부 및 반납장소
불교대학	불교학과	정리원	좌선실	12 : 20 ~	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문과대학	사학과	명진관 102		12 : 20 ~	
	철학과	명진관 106		"	
	윤리문화학과	명진관 208		"	
	국어국문학과	명진관 207		"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204		"	
	독일학과	명진관 102		"	
	일어일문학과	명진관 105		"	
이과대학	수학과	명진관 302	명진관 306	12 : 20 ~	명진관 101
	화학학과	명진관 303		"	명진관 206
	통계학과	명진관 304		"	명진관 122
	물리학과	명진관 308		"	명진관 316
법과대학	법학과	동국관 M302	좌동	12시 ~	교학과
	정치외교학과	동국관 M303	좌동	12 : 20 ~	
	경제학과	동국관 L407		"	
	행정학과	동국관 M307		"	
	경찰행정학과	동국관 M305		"	
	사회학과	동국관 M306		"	
	국제학과	동국관 M304		"	
경영대학	경제학과	동국관 L407		12 : 20 ~	경제경영연구원 경제연구부 (동국관 L동 3층)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L205		12 : 20 ~	해외개발연구소 (동국관 L동 3층)
	경영학과	동국관 L501		14시	경영관리연구소 (동국관 L동 3층)

단과대학	학 과	학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앨범, 졸업논문 배부 및 반납장소
경영대학	회계학과	동국관 L201		12 : 20 ~	회계연구소 (동국관 L동 3층)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401		12 : 20 ~	학생회실 (동국관 M동 5층)
생명지원 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해학관 식물육종학실습실	좌동	12 : 20 ~	학과 사무실
	산림자원학과	해학관 산림경영학실습실	"	"	"
	생명자원산업융합학과	해학관 농업경영학실습실	"	"	"
	통과학과	해학관 G207	"	"	"
	응용생물학과	해학관 일반생물학실습실	"	"	"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원흥관 E601	좌동	12 : 20 ~	학과 사무실
	전기공학과	원흥관 E617	전기공학과 세미나실		
	토목공학과	원흥관 E517	좌동	"	"
	건축공학과	원흥관 E525	좌동	"	"
	화학공학과	원흥관 E217	화학공학과 세미나실		
	기계공학과	정보문화관 P401	정보문화관 P402		
	시스템공학과	원흥관 E317	좌동	"	"
정보산업 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 공학과	정보문화관 P401		13시 ~	학회사무실 (원흥관4층)
	산업공학과	원흥관 F101	원흥관 F103	12:30-13:30	학회사무실 (원흥관4층)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문화관 Q101	좌동	12 : 20 ~	학회사무실 (정보문화관2층)

단과대학	학 과	학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앨범, 졸업논문 배부 및 반납장소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학림관 406		12 : 20 ~	학림관 1층 김해수 교수실 연구실
	역사교육과	학림관 305	학림관 304	"	학림관 5층 역사교육과 학회실
	교육학과	학림관 306		"	학림관 2층 김성훈 교수실 연구실
	지리교육과	학림관 307		"	지리교육과 자료실
	수학교육과	학림관 401	학림관 308	"	수학교육과 컴퓨터실
이과간직조	가정교육과	학림관 407	학림관 405	"	학림관 2층 가정교육과 사무실
	체육교육과	체육관		"	체육관 체육교육과 사무실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A204		12 : 20 ~	교수회관 209호
	중어중문학과	명진관 A101		11시 ~	교수회관 201호
	반도체학과	명진관 A104		12 : 30 ~	명진관 학생회실
	국제학과	동국관 M304		12 : 20 ~	동국관 M동 4층 학생회실
	신문방송학과	동국관 L동3층 실습실		"	동국관 L동 3층 실습실
	독일학과	동국관 M405		"	동국관 M동 4층 학생회실
	경제학과	동국관 M408		11 : 30 ~	경제연구소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L202		12 : 20 ~	해외개발연구소 (동국관 L동 3층)
예술대학	경영학과	동국관 L501		13시 ~	경영연구소 (동국관 L동 3층)
	광고학과	동국관 L301		12 : 20 ~	동국관 M동1층 학회사무실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401		"	동국관 M동 4층 학생회실
	회계학과	동국관 L204		"	회계연구소 (동국관 L동3층)
예술대학	정보통신학과	정보문화관 Q301		"	학회사무실 (정보문화관 Q209)
	미술학과	K308	좌동	12 : 20 ~	앨범 - 각 학회사무실 가운 - 교학과

2002학년도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

- 정규 한국어 과정(봄, 여름 10주)**
- 월~금 오전 9:00~오후 1:00(주당 20시간)
-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사업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한국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
- 집중 한국어 과정(봄, 가을 10주/여름, 겨울 5주)**
- 월~목 오후 6:30~8:30(주당 8시간)
- 체류 외국인 및 교포 대상으로 오전의 정규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 대학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학생비자발급에 관계없음.
- 여름 집중 한국어 및 문화체험 과정(5주)**
- 월~금 오전 9:00~오후 12:00(주당 15시간)
- 15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교포 자녀, 일본 방학에 맞춘 특강, 정부기관 및 사업체 외국인 위탁교육 추진.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봄	2002.2.7	2002.3.11~5.17	₩900,000
가을	2002.8.2	2002.9.9~11.15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봄	2002.2.7	2002.3.11~5.17	₩350,000(봄, 가을)
여름	2002.5.17	2002.6.10~7.12	(교재포함)
가을	2002.8.2	2002.9.9~11.15	₩200,000(여름, 겨울)
겨울	2002.12.13	2003.1.6~2.7	(교재포함)

학기	등록 마감	기간	수업료
여름	2002.6.14	2002.7.8~8.9	₩600,000(교재, 특별활동, 여행 포함)

- 동국대학교 한국어 과정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학습과 실이기는 경험을 주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12명 정도의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친절하고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향상을 도와줄 것입니다.
 - 생활영어와 사할 순례 등과 같은 동국대학교 한국어과정만의 독특한 활동과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상 회화 실습 및 복습과 한국의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어 친구를 사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불교계 학교의 학술적 문화적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비 언어권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의 회화 수업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언어 능력 평가와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후의 진로, 대학 진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Tel: +82-2-2260-3471-1 Fax: +82-2-2260-3691
E-mail: today@dongguk.edu URL: http://today.dongguk.ac.kr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벌은 계속된다 쭉~욱!!

더욱 공고해지는 학벌 카스트, 대치동 증후군 · 편입 열풍 조장

교육부는 올해를 학벌타파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전반에 걸쳐 학벌폐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벌체제가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짚어보고 학벌체제가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본다.

또한 본고 출신 취업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대학생이 느끼는 '학벌'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유명한 학원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오는 가정이 늘어났고, 덩달아 집값마저 뛰며 '대치동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근처의 경기여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지현(15)양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 과목별로 학원을 2개 다니고 있다"며 "이 근처에 사는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학원 한 두개 정도는 기본"이라 말했다.

끝나지 않는 입시경쟁

이처럼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취득한 학벌은 대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군림하기 시작한다. 대학생이 주로 하는 과외 아르바이트에서 학벌이 좋지 않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회나 보수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학벌차별에 따른 열등감은 학생들이 '또 다른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하기도 한다.

2002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따르던 2월초 대학가는 또 다른 입시 모집이 한창이었다. 그 입시 전쟁터는 다름 아닌 편입학시험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강남의 모 편입학원. 천안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1년이 넘게 편입준비에 몰두했다는 강모(21)군은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지방대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곤 했다"며 "열등감에 젖은 채 대학 4년상을 보내기보다는 힘들더라도 편입공부를 하는게 낫겠다 싶었다"고 토로했다.

대학에서 경험하는 학벌차별은 시작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벽은 학벌

이 낮은 사람들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학벌,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몇 년 전 삼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은 '학력 파괴'를 외치면서 학력과 학벌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이는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호지부지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상시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학벌차별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별도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력란에 적힌 학벌이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넷 토론방에는 "모 기업의 경우 이전에는 인사담당자가 일일이 이력서 학력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인터넷 접수 이후에는 서울대, 연·고대가 아닌 사람들은 전산작업을 통해 지원서를 보지도 않고 한번에 탈락시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취업과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인생사인 결혼에서도 학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박세정 상담원은 "상대에게 맞는 파트너를 선정해줄 때 직업, 보수와 더불어 학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특히 여자 회원의 경우 자신보다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조건이 괜찮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으려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학벌의 높은 벽을 넘어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슬한 불평등을 겪게 된다. 우선, 승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 출신들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봐도 지난해 684개 상장회사 임원 가운데 46.8%가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명문대 출신이며, 김영삼 정부 국무위원 중 60% 이상, 현 정부 국무위원 중 45% 이상이 특정 대학 출신이다.

이처럼 개인의 학벌은 평생에 걸쳐 학벌과 상관없이 없는 취직, 일상사, 인관관계까지 개입하고 있다. 국민대 김동훈 교수는 이를 '현대판 카스트제도'라 부르며 현 학벌사회를 전근대적인 신분사회에 비유한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3류대·지방대생들은 한번 정해진 신분처럼 글래로 작용하는 학벌에 의해 좌절을 맛보고 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학벌체제의 문제점 해결책은 없는가

우리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 종조와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학벌문제 해결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학 평준화

이제껏 수많은 교육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대학 서열화'라는 근본 원인을 뒤흔 채 입시제도에만 손을 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학평준화가 제기되고 있다. 즉 대학간에 서열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의 수준을 평균화한다는 것이다.

대학 평준화는 비현실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중학교 무시험 제도의 도입과 고등학교 평준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든 또 다른 서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대학 서열화는 인정하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대 개혁론

학벌주의 폐해의 정점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소수 명문대 출신 엘리트의 고위직 독점현상이다. 때문에 서울대의 개혁 없이 학벌주의 타파와 교육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주장한 서울대 해체론이 있다. 서울대 학부 모임을 없애고 여러 국립대로 그 정원을 넘겨 서울대는 대학원 교육만을 담당하자는 안이다. 또한 서울대 민영화 방안은 서울대 독점 문제가 단순히 대학간의 부당 경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오세재 교수는 "대학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일본의 경우도 동경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할당제

공직자 할당제란 단계적으로 한 대학 출신이 정 부기관이나 공직에 10%이상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흔히 할당제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위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여성할당제가 이미 시행되어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 큰 몫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

한림대 전성인 교수는 "수능의 변별력이 낮을 때 불만의 목소리는 일류대학 당국자나 명문대 입학 희망자, 입시 장사치들에게 주로 나온다"며 "쉬운 수능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쉬운 수능으로 인해 많은 만점자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인원만큼의 대학은 저질로 평준화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쉬워지면 입시경쟁의 부담이 완화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민희 기자

lilth@mail.dongguk.ac.kr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홍훈 대표 인터뷰

"능력으로 경쟁하는 문화 정착돼야"



한양산 전 교육부 총리의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파문' 이후 학벌 폐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 문제를 공론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홍훈(연세대 경제학) 대표를 만나 학벌 폐지 운동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 학벌폐지 운동의 사회적 의미.

=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학벌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학벌을 타파하려 하기보다는 일류대에 들어가서 학벌의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학벌폐지 운동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학벌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들 역시 학벌 체제가 낳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학벌체제의 수혜자로서 오히려 옹호하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식인들 역시 학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도 마찬가지이다. 학벌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학벌폐지를 위해 목청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학벌체제가 붕괴된다면 학생들의 학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학벌 폐지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벌이 폐지되면 입시경쟁이 둔화돼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은 그들이 말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다. '학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벌이는 입시경쟁은 창의력 대신 암기력과 시험치는 기술만을 키워줄 뿐이다.

학벌체제가 없어진다면 사회에서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학력차별 문제도 함께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물론이다. 능력이 아닌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학벌체제가 타파되고 능력을 위주로의 경쟁이 정착된다면 학력차별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벌문제를 시작으로 학력문제까지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학벌사회 속 '동대인'의 자화상

대기업 취업 희망자 대다수 "차별 느낀다" 정작 학벌주의 타파논의엔 "글썸..."

대학입시가 '간판'을 따기위한 전쟁이라면 취업은 '간판'이 승패를 좌우하는 또다른 전쟁이다.

올해 전체 4년제대학 예비졸업생은 23만여명.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가운데 순수취업에 성공한 대학졸업생은 전체 20%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률이 낮은 정도가 모든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것은 아니다. 본고 취업지원팀의 유진 팀원은 "취업난이 심할수록 학벌주의에 의한 피해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취업률이 높아지면 기업인사담당자들이 같은 학교출신을 우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본고는 지난 1월까지 집계된 예비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서울캠퍼스가 약 40%, 경주캠퍼스가 41.52%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학가에 불어닥친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한 것이지만 경쟁력의 경우 졸업생들이 극심한 취업난을 감안하여 아예 기대치를 낮추는 바람에 취업률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본고 졸업생들은 취업난 속에서 학벌주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먼저,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졸업생일수록 차별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모(국제통상4)양은 "대학4년 동안 학점4.0에 토익 850점까지 받았지만 원서를 넣은 30개 기업중 단 한곳에서만 면접시험을 볼 수 있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모(산공4)군 또한 "대기업 면접자리에서 면접관이 같은 학교 출신 면접자를 우대하는 것을 보고 학벌주의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

고 토로했다.

한편 학벌주의가 점점 완화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는 졸업생들도 적지 않다. 대체로 학벌주의 타파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이 그렇다. 지난 96년 본고를 졸업한 최현석(32·고려대) 씨는 "회사에서 '신인 사제도'를 운영해 학벌타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고위급 간부들간에는 여전히 공공연하게 학벌이 형성돼 있다"고 말해 학벌주의의 견고한 틀 자체는 계속 유지돼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실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본고생 및 졸업생 대다수는 실력보다 학벌이 우선하는 사회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대부분이 막상 학벌타파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학교는 일류대와 경쟁할 여지가 있잖아요. 위보다는 아래에 있는 대학이 더 많으니까."

그동안 학벌주의 타파방안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일류대를 무조건 우대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예비졸업생의 말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는 학벌사회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미 부시대통령 방한과 한반도

전략적 외교로 한반도 안정 도모해야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초강경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월 19, 20 양일 간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시의 방한은 넓게는 9.11 테러사태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좁게는 남북관계에 빠져 있는 남북한, 북미간 관계 속에서 한미간 이견조율과 상호이해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혈맹관계에 근거하여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한미간 상호방위전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커다란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미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관계는 많은 부분 대미일변도 의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국제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관계도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수출에 대한 미국의 강경대응 입장이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MD체제에 대한 협조, F15 전투기 구매 등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시대 무역·통상문제 역시 한국과 미국이 상호간 슬기롭게 풀어 가야할 과제이다. 미국은 자본과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김성주 성공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수로 등장했다. 일본 역시 동북아의 역할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과 평화의 위해 우리 정부는 미, 중, 일, 러, 특히 미, 중 변수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역학지형을 구상해야 한다. 우리 외교가 미국 일변도의 편향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변화에 맞는 외교 필요

우리 정부는 부시 방한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파를 초월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해야한다. 북미관계의 경직화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논리에 이끌려 실리를 놓치는 외교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부시의 한국 방문이 남한, 북한, 미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적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한, 미국 상호간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갈등구조는 단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민족의 에너지는 계속 소진될 것이다.

'불량국가' 낙인 찍힌 북한

문제는 명확한 적대국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직도 미국은 자기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이해하는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시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9.11 테러라는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공간을 확대재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다른 적을 찾고 있는 미국은 급기야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수출국으로 분류하고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내지는 '위협국가'로 간주하고 있는 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제도 개정안 발표

'21세기형 공직자' 뽑는 계기로

"관료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 기업 위에 군림하려는 관료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고시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고시제도가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조선시대 과거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고시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고시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발표됐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직적성평가시험(PSAT) 도입 방법과 1·2차 시험 과목, 7·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등을 확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06년부터 치러지는 행정·외무·기술고시 1차 시험 과목에서 한국사 과목이 사라지고 다음해에는 헌법 과목도 폐지된다. 또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소양 등을 평가하는 시험인 PSAT가 전면 도입된다. 고시 출신 공무원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평가를 한 결과 조사대상 중 70%가 PSAT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고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김정택(심리학) 교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개발된 공직적성테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행 고등고시제도를 없애고 정부 부처가 수요에 따라 공무원을 상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보고서'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아직 초안인 상태에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보고서로 확정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6년 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지금까지 41회나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해 왔으나 대부분은 시험과목과 선발인원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번에 KDI가 제기한 개방형 임용제 역시 현 정부가 초기에 적극 추진했던 것이지만 현재까지 본래의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을 민간에 개방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개방형으로 지정된 131개 공직

가운데 임명이 완료된 117개 중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는 13%인 15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솔한 비판에 시달렸던 고시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발표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의 경우처럼 관료주의의 저항에 부딪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사설

졸업생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눈 깜짝할 사이 지나버린 대학생활에 대한 추억을 간직한 채 올해도 어김없이 동국인 5천여 명이 낯선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될 그들의 첫 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사상 초유의 '취업대란'이 그것이다.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9.11 미 테러 사건의 여파로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공공'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졸 예정자 17만여 명, 취업재수생 26만여 명 총 43만여 명이 취업 대기자인 것과 지난해보다 30%가량 낮아진 채용규모를 감안한다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은 이제 특이할 것도 없다. 이와 함께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의 능력을 평가받는 기준이 된 지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각 대학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취업상담 및 특강은 기본이고 산학협동교육을 통해 기업과의 연계를 꾀하는가 하면, 교수들이 일일이 업체를 방문해 학생의 취업을 돕는 대학도 있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과목과 영어패스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졸업생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취업난만이 아니다. 졸업을 앞둔 며칠 전부터 도서 대여가 금지되거나, 졸업 이후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교육을 보충 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소외감은 가중된다. 게다가 취업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치우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졸업생은 재학생의 미래상이나 다름없다. 졸업생을 위한 꾸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재학생 역시 마음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학교는 미취업 졸업생을 위해 졸업 이후에도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이다.

새롭게 출범한 등대위에 바란다

올해도 예외없이 등록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경주캠퍼스 학생회는 등록금 협의의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조직의 핵심은 '등록금 투쟁 학생대책위원회'(이하 등대위)의 구성이다. 이러한 등대위라는 새로운 학생기구의 출범과 동시에 우리는 지난해 이 시기에 활동한 바 있는 대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대개특)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대개특은 '경주캠 자치권 확보와 등록금 협의의 전개'를 목표로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구성 후 발생한 일부 위원들의 등협에 대한 견해차와 이로 인한 등협 기피 현상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펴지 못했다. 결국 대개특은 등협과 자치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채 사라져 학생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는 이후 등협에도 악영향을 끼쳐 학생회 임원들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았다. 현 등대위 구성원 또한 총학생회 일부 임원이 포함됐을 뿐 대개특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지난해 대개특이 남긴 가장 큰 과제인 위원간 단합력 부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중앙운영위원회 소집의 경우만 보더라도 매년 불참 인원이 발생해 위원들의 결집력 부족이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등협은 학생 참여가 우선되어야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년 되풀이되는 일부 위원들의 등협 기피는 해당 단과대 학생들을 등협으로부터 배제시키는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 매 학기초 등협을 위한 새로운 기구는 계속 생겨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구가 제 몫을 하지 못한 채 학기초 학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후 사라져온다. 모든 기구가 가지는 힘의 원동력은 구성원 간 단합에서 나온다. 새롭게 구성된 등대위 구성원은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로 지금까지 보여왔던 형식적인 등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호성 부주장 백승선 편집장 박상관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3-1270 전화 (054)770-2568 팩스 (054)770-2057

Table with 4 columns: Year, Date, Exam Content, Remarks. Title: 2002학년도 학사일정. Rows include exam dates from April to August for various levels (1st, 2nd, 3rd year) and subjects (General, Special, etc.).

청우 동국상 제정 안내. Dongguk University Chungwoo Dongguk Award Announcement. Text describes the award established in 1998 to honor Professor Chungwoo Chung, a pionee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t lists the award criteria, nomina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ungwoo Chung Foundation.

Table with 4 columns: Year, Date, Exam Content, Remarks. Title: 2003학년도 학사일정. Rows include exam dates from April to August for various levels (1st, 2nd, 3rd year) and subjects (General, Special, etc.).

200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박사학위 (총78명)

철학 (7명)	법학 (4명)
▲이정수=대일경(大日經) 주심품(住心品) 삼구법문(三句法門) 연구 ▲선주선=추사 김정희의 불교의식과 예술 관 연구 ▲이동우=유식학파의 아뢰아식(阿賴耶識) 종자론에 관한 연구 ▲조용성=운문선(雲門禪) 연구 ▲남수영=인도 불교의 실유(實有) 비판 연구 ▲백도수=비구계경(Bhikkhupatimokkhasutt-am)에 대한 연구 ▲이명훈=아리스토텔레스의 '후분석론'에서의 논증학과 원리	▲허완=보호관찰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성=인터넷에 의한 증권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박종용=배우자상속권에 관한 연구 -부부재산제도를 통한 배우자상속권의 강화론- ▲이철호=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1961년, 1972년 및 1980년의 정변에 대한 헌법적 분석-
문학 (5명)	정치학 (2명)
▲한용운=국어의 조사화 연구 ▲이광우=동아시아 불전문학(佛傳文學)의 수용양상 연구 ▲강경훈=중앙 김이전 문학 연구 ▲송요후=명청시대 민간 비밀종교 연구 ▲정수완=소시민 영화 연구	▲백성호=한·미 안보동맹과 미·일 안보동맹의 비교연구 ▲김용현=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교육학 (4명)	행정학 (6명)
▲윤재근=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조희욱=평생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체제에 관한 연구 ▲강병운=대학입시제도 변화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함의 ▲박소영=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적 도전과 미술교육의 방향	▲박동열=양도소득세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권승언=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 요인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세용=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장철인=지방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박성택=복지정책과정의 비영리조직(NPO) 참여에 관한 연구 -복지관련조직의 인지를 중심으로- ▲이만규=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영향요인 및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경찰학 (3명)	경제학 (2명)	경영학 (2명)	이학 (6명)
▲홍근영=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 ▲이승주=경찰규제정책집행의 순응확보에 관한 연구 -교통지도단속을 중심으로- ▲이병곤=무경계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하봉주=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 분석 ▲윤주이=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구조와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기선=고용형태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권희은=M&A 협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양승대=암염상용 [18F] Fluorocholine 유도체의 합성 및 체내분포에 관한 연구 ▲조은희=보건데이터의 통계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우=Systematic Study of the Family Theridiidae(Arachnida:Araneae) in Korea ▲서광식=Effect of Soybean Isoflavones on the Apoptosis and the Responsiveness of Local Factors Induced by Tumor Necrosis Factor- α in Osteoblastic Cells ▲박영규=Studies on the Voltinism,	▲김승태=인공세포의 합성 및 체내분포에 관한 연구 ▲이현관=가상 로트 팔 제어를 위하여 개선된 SOFM 방식을 이용한 근전도 패턴인식 ▲정성부=시그모이드 함수의 이득을 퍼지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조정된 다층신경회로망의 성능개선 ▲조성택=대표색 공간 특징을 이용한 시그너처 기반 이미지 검색 ▲임명규=건축의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김홍수=공동주택 설비감관의 내용 연관 평가에 관한 연구 ▲장영희=노인의 생활행태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시설의 활성화 연구 ▲송인식=건축 디자인 단위공간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Parasitism and Host Preference of Pine Moth, Dendrolimus spectabilis(Lepidoptera:Lasiocampidae)and Its Suppression by Trichogramma dendrolimi(Hymenoptera:Trichogrammatidae)	임학 (1명)	공학 (10명)
▲송정애=저소득 편모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편모를 중심으로-	▲권오철=ACP(Acrylic acid Co-Polymer)를 이용한 제지공정수의 스케일억제효과	▲윤진섭=V 밴드 MIMIC 주파수 체배기 설계 및 제작 ▲채연식=V 밴드용 MIMIC 하향 주파수 혼합기 설계 및 제작 연구 ▲윤용순=GaAs PHEMT를 이용한 V 밴드 CPW 전력증폭기 설계 및 제작 ▲이현관=가상 로트 팔 제어를 위하여 개선된 SOFM 방식을 이용한 근전도 패턴인식 ▲정성부=시그모이드 함수의 이득을 퍼지논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조정된 다층신경회로망의 성능개선 ▲조성택=대표색 공간 특징을 이용한 시그너처 기반 이미지 검색 ▲임명규=건축의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김홍수=공동주택 설비감관의 내용 연관 평가에 관한 연구 ▲장영희=노인의 생활행태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시설의 활성화 연구 ▲송인식=건축 디자인 단위공간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의학 (18명)
▲정주화=상기생이 골다공증 예방에 미치는 영향 ▲김광진=난소절제 흰쥐의 골대사에 미치는 골해보의 영향 ▲김형환=간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백화사실초의 보호효과 ▲황성복=우황청심원이 당뇨병 Rat의 혈액순환장애에 미치는 영향 ▲구진숙=육미지황탕가미방이 흰쥐의 성장과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김창환=Effect of Siisosangami on neutrophil functions, iNOS and COX-2 ▲김민석=우황청심원이 저산소증으로 유발된 자연성 신경세포사에 미치는 영향 ▲박수영=Effect of Hwaotang on superoxide generation and neutrophil functions ▲박시홍=합환근피의 항돌연변이성 효과 및 간독성 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진용=피부화상으로 유도된 급성 폐손상에 대한 사순청량음, 삼백피 및 정력자의 효능 ▲노영현=팔미지황탕가미자와 운동이 ZDF Rat 골격근의 당 막수송 대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안은정=팔미지황탕가미자와 운동이 ZDF Rat의 췌장과 심장근의 당 막수송 대사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왕석=혈부축어탕과 그 구성약물군이 Alloxan 당뇨 백서의 혈청 조성 및 항산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규형=Effects of Drynariae Rhizoma on bone metabolism and PGE2-mediated IL-1 β production in rodents ▲김성대=Effect of Scutellaria balicalensis Georgi extract on reactive oxygen species-

induced cell death in human glioma cells ▲김경훈=Effects of Honghwan-Jahage extracts on the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of osteoblastic MC3T3-E1 Cells ▲신정식=Effects of Sogunjangtang on bone rebuilding in osteopenic rats induced by glucocorticoid, ovariectomized and treated with GnRH agonist ▲박영덕=Effect of Yukmi-jihwang-tang- <i>Carthamus tinctorius</i> L. extracts on the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of osteoblastic MC3T3-E1 Cells	의학 (8명)
▲김응석=복막의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 발현이 복막투과도에 미치는 영향 ▲정철=경주사에서 집단 발생한 세균성 이질 확진자에 대한 유전형질 분석 ▲김승기=복강내 투여한 Aminoguanidine에 의한 후기당화산물의 복막내 생성 억제 효과 ▲김승만=DMBA (7, 12-dimethylbenzanthracene)삽입으로 유발된 백서 난소종양에서 Cyclin E, p21과 p27의 발현양상 ▲방장석=Ribosomal DNA의 Nontranscribed Spacer 부위에 반복요소의 증폭에 의한 <i>Trichophyton rubrum</i> 의 균주간 동정 ▲김덕수=자동차 부품업체 생산된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 위험요인 평가 -초음파 검사로 측정된 수근관 형태를 중심으로- ▲김덕규=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 55 kDa Protein in the Rat Cerebellar Postsynaptic Density Fraction ▲정호근=실험적으로 유발된 흰쥐 유방종양에서 cyclooxygenase-1 및 cyclooxygenase-2의 발현과 cyclooxygenase-2 선택적 억제제인 celecoxib의 종양 발생억제에 대한 효과	

석사학위 (총549명)

일반대학원 (261명)	허운기 황석진 구혜영 권영호 김선규 김승규 김영희 남광현 민정현 박성은 박홍수 유홍준 윤태완 이노경 이영석 이재웅 조창철 채정숙 최인관 한광진 현진일 홍경표 김재필 나주인 명노용 배진용 송승준 이주형 최재근 강상대 김종욱 류정훈 박유신 박홍균 안정훈 양옥빈 오세웅 이동원 주승돈 최우석 문 현 한 혁 김현남 박현석 김태홍 전용덕 최용조 권동주 김종환 김태훈 박재섭 박종용 배상수 임현정 정길용 김승욱 박형식 이선미 장윤희 정승원 정영임 차인영 이 준 김상용 박용국 신계영 윤종식 황호순 남중구 광명훈 임재한 기흥기 양갑석 오태수 류성진 김용현
문 학	구윤임 김보현 김홍미 박춘근 이윤심 조경자 정혜련 성청환 정진형 광용식 김광원 김명리 김해덕 박노현 서희원 심혜경 정지수 류수용 송덕준 신명은 이지은 정숙현 최순권 강민정 윤상한 홍성욱 강영주 강현정 김보형 김정임 김종란 김주미 노세진 신은수 이수정 주영희 한정호 배경민 손종희 양경모 이주영 최진아
교육학	권효진
법 학	김범식 김형선 오남광 이상은 장호일 정치학 최 정 박성철 오진웅 이동구 장정운 정주영 홍 민
행정학	박종화 염석훈 이기성 이무호 장민석 전은정 홍석원 경찰학 고성호 정세종 김현준 경영학 강지연 강지훈 구민호 김경남 김호석 류주희 신명희 이동진 임기태 조성현 최성복 김종현 신대인 원동연 강찬열 문성구 신성민 이정우 임현성 백종철 주선희 김준강
상 학	김정환 박혜연 손승표 유승환 진상빈 허명재 경제학 송미혜 심태민 이형주 차상도 조영우
지리학	오윤식 오준석 윤용민
이 학	이진선 배광혁 시상만 강애경 도현욱 문병식 박성균 박정훈 서재덕 심영지 윤승무 이이철 박경락 이상운 장운정 강윤목 권대훈 박기원 차정호 최기원 안성준
임 학	박흥석
조경학	강병호 남선영 문성순
박용환	박하원
공 학	강성호 강태신 권용광 김진성 나윤석 서동하 서원호 설우석 양종호 윤수정 윤여상 이주현 임병욱 정지학 허문만

장석진 최수영 최재성 백승민 석영준 심재관 이광현 이근복 이두형 최양환 권승재 류환춘 서천호 이강석 이금형 이병춘 이재경 이진상 조창현 주용식 고경국 김도연 김명욱 김영실 김영화 김윤경 김지도 김철석 김현경 김혜원 민항숙 박경주 박종태 박근지 박명식 박미정 박종돈 서연경 송호식 심준주 안재용 유선미 이남재 이명숙 이미영 이미향 이병렬 이상운 이선행 이세미 이예자 이종술 정선경 조연상 조임순 최계순 최춘석 추기욱 현노을 조종남	경영대학원 (30명)	김중대 박재만 박종희 이강호 정주교 이 학 심윤섭
경영대학원 (30명)	백태우 이정숙 광재민 김대규 김승근 김지현 노시운 박종화 박현수 은길수 이병호 김현욱 원현혜 김규범 박경란 이유근 전용승 최형규 김성배 김유례 김창현 김호석 문만동 박상현 이용호 고미정 박경선 이진욱 오수정 최승희	문화예술대학원 (28명)
교육대학원 (75명)	허 영 강경희 김선태 김정희 김창수 민기숙 심수미 윤애라 이강석 인봉숙 조순영 조종기 허옥자 조 훈 고수부 권영순 김광욱 김락희 김보성 김상분 김선희 김재욱 김종문 김진숙 김진환 김철환 김효진 문수연 문지현 민연아 박병춘 박소영 박연배 박철수 박희영 배석일 백진미 변경애 변유민 성경숙 성수희 송기준 신윤숙 신은화 심상일 양세열 양연실 양인정 오운용 유인탁 윤종현 이경화 이경희 이민희 이상배 이순영 이왕희 이은영 이주은 이한근 임윤경 장병현 장현선 장혜경 정동경 정보은 정완기 정은주 정지영 정창훈 조양진 최명기 최주용 최지연 한승석	국제정보대학원 (13명)

언론정보대학원 (14명)	노일범 손미은 송상진 김상우 김은아 김준수 남태영 안용수 유세준 이문노 정원영 홍지혜 문 학 김태화 남윤중
산업기술환경대학원 (33명)	장 용 강재호 권지현 김덕기 김윤식 김주형 민병덕 양진형 유광재 윤용식 이동근 이석현 이정숙 이진형 이창진 임우재 정영수 조준용 최상호 한정열 경운수 김상대 나채문 서정혜 윤정미 윤현주 광승욱

문화예술대학원 (28명)	박 찬 김미영 오주영 이영화 이운정 조준호 한임석 홍양순 홍윤경 권복순 김성열 김차호 박한신 서해진 실창근 양미숙 이병준 김선덕 김성철 심보경 이영택 음악학 강문봉 송규정 한서연 미술학 안희경 조윤철 조지희 문현주
국제정보대학원 (13명)	김세용 김동성 서은숙 지명신 김용민 박종복 송준학 육계산 이종호 이진학 한충희

사회과학대학원 (18명)	이상수 장성호 이승욱 장동원 최병한 장동원 차동길 박노재 김효우 최주익 하성호 김병태 손정민 박 일 손미향 이제성 정태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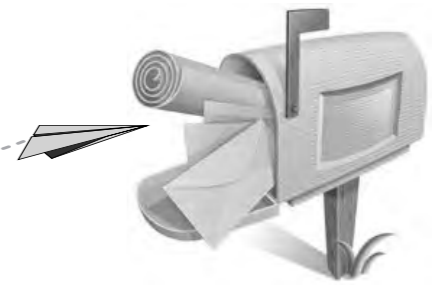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보석처럼 간직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Dear. 교수님

편집자



우리의 두눈이 밝아질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고르는 촛불이시여

40년간 계속 된 동국사랑 영원한 '동국맨'으로 남아 이어갈 터



조영록 교수 (문과대 사학)

깊은 향을 내는 자스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장미차, 과일향과 독특한 꽃향이 어우러진 계화차... 이 모든 향이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곳. 오랫동안 중국 답사를 하며 향의 매력에 빠져 꾸준히 중국 차를 모으려 왔다는 조영록(사학) 교수의 연구실이 바로 그 곳이다. "중국 차에서 나는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그런데 난 차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해." 56년 입학하며 본교와 함께 한 40여 년의 세월을 그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학교도 넓어졌고 새 건물도 많이 생겼지." 가건물이 대부분이었던 자신의 학창 시절에 비해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강의

실을 보며 학교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다는 조교수. 그는 건물 하나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후배들의 공부하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사실에 마냥 뿌듯했다. 그래서 서인지 손 때 묻은 책들을 정리하는 그는 텅 빈 책장에서 오는 아쉬움보다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 쌓아 둔 책상자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듯 하다. 40년을 함께 하며 어느 누구보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그는 "우리 학교가 보다 발전하려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 발전을 위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최초의 중국 실크로드 답사와 황해 뱃목 답사를 성공하는 등 동양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의 학문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는다. 조교수는 "끝이라는 생각보다 앞에 펼쳐질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며 앞으로 중국 불교 연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서를 편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퇴임 후에도 학생, 교수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영원히 '동국맨'으로 남겠다는 조영록 교수. "세계화에 맞게 자신의 전공을 특화시키며,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는 말속에서 교수이기 전에 후배를 사랑하는 선배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회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 위한 순수한 감각 가져야



한상범 교수 (법과대 법학)

"아직도 연구할 것이 많은데 현역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섭섭하지." 40여년 동안 지켜왔던 연구실을 떠나지는 한상범(법학) 교수. 학생들과 함께한 '현역시절'이 벌써부터 그리운 듯 퇴임의 아쉬움을 표한다. 본교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학교와 첫 인연을 맺은 한교수는 본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1961년부터 후배들에게 법을 가르치기 위해 강단에 섰다. 한교수는 평생을 인권과 일제잔재청산을 하나로 묶는 학문에 몰두했다. 그런 그에게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은 '한청년'이다. 늘 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젊은이보다 더한 정열을 쏟는다는 의미에서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연구활동과 함께 끊임없는 실천적 사회활동을 병행한 한교수는 1964년 한일 협정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3선개헌반대 등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노력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고문과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며 인권 보장과 일제잔재청산을 평생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법을 공부하면서 일제잔재청산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이뤄지지 않고 인권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이 한국 법학에서 참다운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길이라고 믿고 노력했지"라며 사회활동참여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상범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 "동국인으로 학교에 좀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동국 발전을 위해 모두가 본연의 임무를 다해줬으면 한다"고 전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시대가 변해도 학생의 기본 역할은 변하지 않아. 젊은 학생들은 사회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진리와 정의 위해 순수한 감각을 가져야 해"라는 '한청년'다운 충고도 잊지 않는다. 정부가 장기 근속 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정중하게 사양한 한교수. 형식적인 훈장은 낭비라며 끝까지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그는 이후에도 뜻다른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퇴임의 또 다른 출발선 앞에 선 한청년의 완주를 기대해본다.

엄격하고 꼼꼼한 호랑이 교수님 인간위한 경영학 위해 나아갈 것



이순통 교수 (경영대 경영학)

"B제야. A는 욕심이지. 난 원래 학생들에게도 A 잘 안주기로 유명했거든." 학점 '짜'기로 유명한 이순통(경영학) 교수. 그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수생활 40여년에 대한 학점을 매겨 보았다. 플러스 하나라도 붙여 줄 법한데 "한 눈팔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점을 높이 사서 그나마 B제로"라고 잘라 말하는 모습이 엄격하고 꼼꼼한 호랑이 선생님이다. B학점은 그에게 '노력'과 같은 의미다. 대학시절 경영학에 매력을 느낀 뒤 반평생동안 한 길만을 꾸준히 달려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수가 된 후로는 외부 활동과 집필작업을 통해 학자의 본분에 충실히 해 온 한편, 제자들의 출석을 꼼꼼히 챙기는 등 교육자로서 작은 것 하나

도 놓치지 않았던 그이다. 그러나 이교수가 이처럼 세심하게 자신의 역할을 챙기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 "경영학은 변화무쌍한 학문이지. 그만큼 매력도 있고, 하지만 경영학 또한 내 이웃을 위한,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네. 부자가 되기 위한 학문이 아니야." 인간을 위한 경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산, 그리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소비 등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자신의 학문을 철학적으로 사유할 줄 아는 이교수의 경영학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그만큼 앞으로 경영학을 연구할 제자들에 대한 애정 또한 깊다. "노력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노력하는가도 중요하네. 제자들이 먼저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고 학문에 임했으면 좋겠어." 퇴임 후에도 한학기 수업과 외부활동, 집필활동 등 많은 일을 남겨 두고 있는 이 교수. 제자들을 위한 '노력과 가치관'에 대한 당부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그 자신에게 건네는 말과도 같다. "앞으로 퇴임 후 삶을 마칠 때까지 내 목표학점은 C라네. 물론 계속 앞으로 나아갈 테지만 이전 나도 늙었거든." 노력하는 삶 자체를 어떻게 학점으로 매길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엄격함을 잃지 않으려는 이교수의 모습이 뒤편 쉽게 알아가려는 세대 속에서 새삼 귀중하게 느껴진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제자들에게 사랑과 열정 남긴 진정한 '스승'으로 기억되고파



신효선 교수 (생명자원과학대 식품공학)

'스승과 제자' 묘하게 조화로운 두 단어는 되어서 볼수록 정이 간다. 하지만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선생과 학생은 혼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보기 드물다. "진정한 사제지간은 단순히 가르침을 주고받는 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신효선(식품공학) 교수는 개인주의에 젖어 지극히 사무적으로 퇴색돼 버린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꼬집는다. 지난 69년을 시작으로 본교 학생들과 맺은 인연이 올해로 33년째인 신교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했던 그는 떠나야 할 때를 앞둔 지금도 제자와 함께 하고 있다. "교단에 설 때도, 연구를 할 때도, 논문

을 발표할 때도 난 혼자 아니었지." 그는 지금 한창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연구도 다 제자들 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만큼 신교수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애착도 남다르다. 그는 "내 일에 열정과 노력을 가져야 제자들도 내 뒤를 따르지 않겠나"라며 식품공학은 식생활과 관련된 것인 만큼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학문이라고 강조한다. 덧붙여 같은 학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진취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당부하며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로 나눠 학문을 재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친다. SCI에 등재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만도 100여 편,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상 수상, 베스트셀러였다는 '최신식품화학'이라는 전공교재 저작 등, 언뜻 보기에는 그의 화려한 이력이 권위를 내세운 자랑거리라고 여겨질지 모르나. 하지만 '최선을 닦아선 성실함, 솔직을 넘어선 정직함'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온 신교수. 식을 줄 모르는 제자에 대한 사랑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그에게 그것들은 진정한 스승임을 증명해 주는 훈장과도 같다. 신교수의 바람처럼 그 훈장이 제자들에게 이어져 그가 떠나게 될 자리를 언제나 지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하지만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



이정덕 교수 (사범대 가정교육)

수비처가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다하여 생의 외경을 강조했던 것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학생들에게 알려내는 것에 반평생을 투자한 교수가 있다. 생명 의의와 경과 휴머니즘을 두 개의 바퀴 삼아 왔다. 이정은(가정교육) 교수가 바로 그사람이다. "학생들이 '공경'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아쉽네.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무생물도 존경할 수 있는 공경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은데..."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강단에 서 왔지만 아직 가르칠 것이 많으며 못내 아쉬워하는 이정덕 교수. 이제 그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지만 삶에 대한 열정만큼은 30년 전과 다를 것이 없다.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하지만

성장하는 인간이 되어야지"라며 학생들에게 항상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당부하는 이교수. 한사람 한사람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한다면 사회는 저절로 밝아진다는 것이 이교수의 생각이다. "환경운동가가 아무리 환경에 대해 이야기 해도 주부가 쓰레기 하나를 신경 쓰지 않고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가정학이 철학과 예술, 환경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이교수는 모든 것의 밑바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한다. 이교수는 이런 가정학의 특성을 살려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직접 주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와 가족 생활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교수는 퇴임을 준비하는 지금 역시 여유롭지만은 않다. 그동안 진행했던 상담활동은 물론 어린 이 신문 집필, 동화에서 생물을 대하는 태도 연구까지, 그의 퇴임은 단지 하나의 행사로만 여겨질 정도이다. "풀 한 포기 작은 생명조차 소중히 생각하고 생명현상에 대한 예민함을 가져야 한다"는 이정덕 교수. 퇴임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 해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처음 붓 잡던 마음가짐 잃지 않고 작품활동 끊임없이 해나갈 터



송영방 교수 (예술대 미술학)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붓을 놓지 않은 송영방(미술학) 교수의 손은 이야기를 할 때에도 붓을 지우 잡으려 한다. 고풍스런 중절모를 손쓰스레 벗어 탁자위에 내려놓던 그의 손에서 여유로운 화가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시골에 살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봄만 오면 때문에 '입춘대길'이란 붓글씨를 쓰게 하셨지." 자연스레 붓잡는 일이 익숙해졌고 학창시절 내내 미술공부에 전념하게 됐다. 대학에 입학해 서양의 가는 붓이 아닌 동양의 굵직한 붓을 택한 그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감성과 정신을 화폭 안에 잘 녹여낸 오원고 단원을 좋아한다. "쉬어서 튀기보다는 쉬이지 않고도 세계의 보편타당

한 문화가 되어야 하네." 대중화를 위해 혼용되고 있는 동양문화의 주제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송교수. 그는 동양의 주제성이 살아있는 문화를 세계화 시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과제라며 틀에 박히고 정제논리로만 운용되는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렇기에 경제문제도 인제 순수예술을 기피하는 예술인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즘 예술계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제껏 가장 보람된 일이 제자들의 성공이라며 "끝없는 예술의 길에 들어선 이상 머리가 희끗해져도 언제까지나 학생이지. 같이 공부하는 선배로서 큰 뜻을 세우고 그 한길에만 매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 라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는다. 자식같은 제자들이 있기에 퇴임 후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날 예정인 송교수는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작품활동에도 열정을 쏟을 계획이다. "남의 것을 보기전에 자신의 발발부터 살펴야지"라며 우리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그의 말에는 젊은 예술인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충고도 담겨있다. 송교수가 교정을 떠나서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 과사무실 앞에 심은 매화나무가 고즈넉한 꽃을 활짝 피울 훗날, 송교수의 예술혼도 한껏 만발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매체비평

도서 편 - 한강

민족정신의 뿌리 찾는, '또 다른' 한강의 기적



조성래의 세 번째 대하소설 '한강'.

1983년 한 문예지에 '태백산맥'의 첫회가 게재될 때만 하더라도 이 소설이 한국사회에 물고을 충격과 파장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이 완간되자...

'태백산맥'이 조국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에 관한 총체적 조감인면서 두 동강난 국토와 민족정신을 하나로 잇기 위한 정신적 등불을 세우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아리랑'은 거기에 기와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한 민족 특유의 강인하고 활력있는 민족정신의 본질을 소설적으로 구체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강'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60~7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주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울의 일류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상경한 유일민·일표 형제를 주축으로 이 소설에는 사회 각 계층의 허다한 인물군상이 등장해 한국현대사의 거대한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재현해낸다.

그러나 '한강'에서 더 많은 비중과 각별한 애정으로 다루어지는 계층은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원, 가발 공장이나 청계천 피복공장의 '공돌이·공순이', 버스 차장, 그리고 낱품을 팔며 연젠가는 신비탈 무허가 판자집에서 벗어날 것을 꿈꾸는 수많은 민중들이다.

장영우

예술대 문예창작학 교수/문학평론가

판타지, 진짜같은 거짓말의 즐거움

당신이 꿈꾸는 판타지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불쑥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네버랜드, 호그와트 마법학교, 호빗 마을 혹은 새로운 환상의 세계... 판타지가 각종 매체에서 각광받는 요즘 누구나 두어 가지는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판타지(fantasy)'라는 용어의 사전 정의는 '상상, 공상, 환상, 환각' 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작곡한 음악을 뜻하는 '환상곡'이다. 그러나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세계를 뜻하거나, 검과 마법, 요정, 드래곤 등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하는 문학, 영화, 게임 등 여러 분야를 특징짓는 명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신화와 영웅의 시대와 만나게 된다. 당시 판타지라는 개념과 규정은 없었지만, 판타지의 중요 요소인 신물 원형, 즉 '반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게르만 신화 속 '시구르드전설'은 중세 독일에서 '니벨룽겐의 노래'라는 영웅서사시로 읊어진 바 있다.

판타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앞서 언급한 톨킨의 3부작 소설 '반지의 제왕' 1부 '반지원정대'가 출간되면서부터이다. 톨킨은 신화와 서사시를 기반으로 회기적이고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 판타지를 하나의 장르로 만들었다.

이후 '반지의 제왕'의 인기에 힘입은 판타지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 소설들

은 큰 호응을 얻어 다시 게임과 영화, TV시리즈 등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는 자칫 문학에 한정될 수 있었던 판타지를 다양한 장르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어, 문학 각 분야에 판타지 붐을 불러왔다.

이렇듯 사람들이 판타지에 열광하는 까닭은 판타지가 현대의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접하기 힘든 모험과 환상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검과 마법으로 사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마법사는 드래곤을 타고 하늘을 나는 등 판타지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람들은 이런 판타지 장르를 보고, 읽고, 듣고, 느끼며 동심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신나게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롤 플레이 게임을 하면 스스로 판타지의 주인공이 되어 대리만족과 스틸을 만끽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판타지는 간혹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판타지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일상과 현실의 자신을 부정하고, 환상 속 멋지고 근사한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공상의 세계로 피하려 하는 경향을 불러올 수 있다.

아름답고 신비한 환상은 종종 지친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지만 삶 자체가 될 수는 없다. 현실, 매일의 일상이야말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판타지를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조차 마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퇴마록'작가 이우혁 씨를 만나

"역사가 묻어내는 한국형 판타지 펼쳐야"



판타지 영화가 흥행하면서 판타지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퇴마록' '왜란종결자' 등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의 물꼬를 텃다고 평가받는 이우혁씨를 만나 우리나라의 판타지 장르에 대해 들어보았다.

- 판타지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타지 소설을 읽다가 직접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판타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춘 기존 판타지 문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보다 인간을 중요시 하는 동양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국형 판타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 판타지 소설을 '문학'으로 인정하는가.

= 판타지 소설은 그냥 판타지다. 아마 판타지 소설

은 시대가 변해도 항상 별종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순수문학에서는 판타지 소설을 문학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판타지 소설 작가들은 판타지 창작 자체를 즐기는 것이므로 문단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다.

- 최근에 퍼지고 있는 판타지 소설의 문제점이 있다면.

= 요즘은 서양 판타지를 그대로 베껴온 판타지 교조가 만들어져, 일정한 형식만 외워 판타지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작품들은 천편일률적 주제와 비약적 스토리 전개로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사실 판타지는 모든 구성요소를 작가의 상상력에 의존하면서도 현실성을 지녀야 하므로 철저한 자료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판타지가 나아갈 방향은.

= 판타지를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연구해 한국 판타지에 걸맞은 세계관을 세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중국은 무협지, 일본은 사무라이 중심의 판타지 문학을 고집해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문학 장르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양 판타지 모방에서 벗어나 우리 정서에 맞는 판타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유형을 알면 판타지가 보인다?

기존 모티브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 꾀해야

매일 밤 꿈 속에서 마법사가 되어 성질 포악한 드래곤과 한판 대결을 펼친다고 상상해 보라. 대신 마법사는 언제나 마른 체구에 까만 머리로, 톱그란 안경을 쓴 소년의 모습이다. 매일 반복되는 이 꿈에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대결을 펼치는 드래곤의 색깔 뿐이다. 어제 까만용과 싸웠다면 오늘은 초록색 용, 내일은 붉은 용과 대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꿈이 과연 재미있을까.

최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판타지의 종류는 세계고전부터 인터넷 상의 아마추어 작품들까지 실로 엄청난 수에 이르고 있다. 또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보다 폭넓은 계층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를 직접 쓰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판타지는 어느새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인 변화나 성장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에는 판타지의 법칙이라느니 문물용이라며 판타지에 '꼭' 등장하는 규칙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초보 작가들에게 이를 권하고 있어 판타지 정형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의 판타지물이 약 50년 전에 발표된 톨킨의 '반지원정대' 속의 세계관과 배

경, 종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배경은 '또' 중세유럽이고, 주인공은 위험에 빠진 세계를 구하기 위해 환상 속으로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예상대로' 세계를 구해내고야 만다는 줄거리는 이제 뻔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몬스터, 요정, 악마와 같은 주변인물과 주인공이 약한 무리를 무찌를 때 사용하는 판타지 특유의 마법과 검은 '여김없이' 등장한다.

때문에 현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타지 정형화 논란은 의미있다. 물론 한 장르의 특성으로 볼 것이나, 인류사의 반복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흔히들 판타지의 매력을 무한한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많은 이들이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판타지를 집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작품의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차용하는 요즘의 판타지가 과연 독자들에게 끝없는 상상력과 그로 인한 환상의 순수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타지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판타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나은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메아리

엽기스런 '그들'

▲"귀 없~지? 반했~지? 사랑스럼~지?" 여장 남자 승순과 태식, 준호는 극중 삼각관계를 이루며 매년 '엽기스런' 갖가지 멘트와 웃음이 묻어나는 몸짓으로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바로 KBS TV '개그콘서트'의 '엽기스런 그녀' 팀이 그 주인공. 그리고 이들의 엽기스런 삼각 애정구도는 많은 사람들 눈에 언제나 귀엽고 유쾌하게 비친다.

▲지난 5일, 광화문에 위치한 오마이뉴

스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노무현 교문을 인터뷰하려는 오마이뉴스측과 이를 막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날 선관위는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아 '언론' 매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주자인 노 교문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근거를 들고 나왔다. 오마이뉴스에서 시도하는 '특별 열린인터뷰'는 그 형식이나 내

용면에서 정간법에 등록된 기존 방송사나 신문사들의 대선주자 인터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마이뉴스가 하면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날 사건은 노 교문이 선관위에게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오마이뉴

스에 하룻동안 접속하는 네티즌이 50만명 이상인 현실을 간파한 채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으로 손꼽히는 오마이뉴스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네티즌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장(場)인 각종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상황설계에서부터 그들이 나누는 대

화, 행동까지 엽기적일 수밖에 없는 '엽기스런 그녀'들.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엽기적으로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던 지난 5일 오마이뉴스 사무실 앞 사건.

이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전자는 사람들에게 시원스럽고 유쾌한 폭소를 선사하고 후자는 찜찜하고 씁쓸한 냉소를 선사한다는 것뿐이다.

표은영 문화부장 pisik20@dongguk.edu